

# 중국어 담화와 문법 최근 연구 동향 고찰

이지원\*

---

## ◁ 목 차 ▷

---

- I. 들어가면서
  - II. 담화와 문법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중국어 담화와 문법 최신 연구 동향
    - 1.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 2. 순차 맥락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 3. 담화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 4. 태도 표시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 5. 비언어적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 IV. 나오면서
- 

## I. 들어가면서

이 연구는 학제 간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등장한 담화와 문법(discourse and grammar)의 이론적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중국어와 관련하여 수행된 담화와 문법 연구 성과를 분석 방법과 특성에 따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향후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형식주의적 언어 연구는 문법을 원형적인 문장(prototype sentences)을 구축하는 선형적으로 완결된 고정된 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형식주의적 언어학자들은 인위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완전한 문장 단위로 문법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에 나타난 기능주의적 언어 연구는 형식주의적 언어 연구자들이 인위적인 문장 단위로 문법 분석을 한 데 반기를 들고 문장 단위 이상의 담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실제 언어 사용과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

\* 嘉泉大學校 東洋語文學科 助教授

(Chafe 1976; Givón 1979; Du Bois 1980; Hopper 1979).

담화와 문법은 1990년대 기능주의 언어관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어를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실제 자연 담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담화와 문법은 상호작용언어학(interactional linguistics) 또는 상호작용과 문법(interaction and grammar)이라고도 하며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담화와 문법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담화와 문법은 문법 구조의 체계성을 분석자의 개인적인 시각이 아닌 객관적이고 경험주의적(empirical) 분석 방법을 취하여 실제 담화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중국 어학 연구는 문장 단위의 문법 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제 자연 담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21세기에 들어서야 담화와 문법 이론과 연구 방법론이 소개되었으며 기능언어학과 대화분석의 학제적 시각에서 문법을 분석하는 연구는 冉永平(2004)과 李成團(2008)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반면 담화와 문법 연구 이론과 방법론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어학 분야에서 담화와 문법 연구에 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어 담화와 문법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이 연구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담화와 문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담화와 문법 연구의 특성과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중국어와 관련된 최근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논의한다. 4장에서는 향후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 담화와 문법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보여 주기 위하여 21세기 이후 수행된 최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기존 중국어 담화와 문법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은 Biq, Tai, and Thompson(1996)과 Biq(2000)를 참조할 수 있다.

## II. 담화와 문법 연구의 이론적 배경

담화와 문법은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담화기능주의언어학(discourse-functional linguistics)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하였으며 이들 연구 영역의 특성과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한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언어인류학은 인류학의 하위 분야에 속하며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연구로 정의된다(Gumperz and Hymes 1964; Goffman 1967, 1981; Garfinkel 1967; Vygotsky 1978). 언어인류학의 초기 연구는 북미주 토착민들인 인디언을 비롯한 여러 인종들의 문화 또는 사회 현상들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규명하고자 시작 되었으며 언어인류학자들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인류 삶의 모습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언어인류학자들의 언어 현상에 관한 인류학적 관심은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언어인류학에서 발달된 연구 접근법 중에 담화와 문법 연구의 형성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친 것은 Hymes 등에 의하여 70년대 초반 및 중반의 시기에 발달된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speaking or communication)이다.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인류학 연구에서 시작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언어 행위를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언어 분석의 단위를 발화 행위(speech act), 발화 사건(speech event), 발화 상황(speech situation),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로까지 확장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는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자들은 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 사용이 갖는 인간의 사회 행위(social action)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선형적으로 정해진 문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화와 관련하여 사회 체계의 통합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의사소통 행위를 녹음하여 인간의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기능 등을 경

협적 일반화를 통하여 수립하려고 한다. 언어에 반영된 사회 행위를 언어 분석을 통해 규명하려는 언어인류학적 노력은 담화와 문법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시작된 대화분석은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 행위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화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체계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acks 1972, 1992; Atkinson and Heritage 1984; Sacks, Schegloff and Jefferson 1974). 대화분석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체계성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행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의 사회학은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사회 행위를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데 반하여 대화분석은 화자들 간의 사회 행위 수행인 대화를 빈도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으로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며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장한다.

대화분석자들은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화자가 왜 그 발화를 지금 그 순간에 하는가(why that now)라는 것을 순차적 맥락을 통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화분석에서는 말차례체계(turn-taking system)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중복 또는 방해 현상(turn overlapping and interruption), 순차 구조(sequence organization), 인접쌍(adjacency pair), 수정(repair), 선호 구조(preference organization), 이야기 구조(story-telling structure)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현재 대화분석 연구는 인간의 사회 행위가 가장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제도담화(institutional talk)를 포함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대화분석자들은 교실담화, 의료담화, 뉴스 인터뷰, 법정담화 등 여러 장르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담화의 상호작용 체계가 일상 대화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분석은 사회언어학, 화용론, 담화분석 등의 연구 분야와 연관을 가지며 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언어학의 한 분야인 기능주의언어학은 언어 자체에서 출현하는 어법에 중점을 두고 언어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언어 구조가 화자와 청자 간에 대화 상황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형성되는 담화의 패턴이나 의사소통의 습관이 제도화 또는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능주의언어학 연구자들은 담화 상에서 문법은 선형적으로 내재된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담화 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유발되며 담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주장한다(Givón 1984; Bybee 1985; Li 1976; Du Bois 1985, 1987; Hopper 1987).

초기 기능주의언어학 연구에서는 주로 문어 담화 또는 독백(monologue)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Tomlin 1987; Haiman and Thompson 1988). 그들은 담화 자체는 문법 분석의 주요 대상이 아니고 단지 문법 연구의 배경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기 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문법 분석의 주요 대상이 인위적인 맥락에서 추출한 담화 자료나 실험적인 상황에서 추출된 상호작용적 특성이 없는 독백 자료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기 기능주의언어학에서 발전한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은 담화와 문법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존 형식주의 언어 연구가 문법을 언어 사용자와 언어 사용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간주하였다면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은 문법이 실제 담화 상에서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본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를 언어가 사용되는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을 대표하는 문법 개념으로는 Hopper(1987, 1988)의 발생 문법(emergent grammar), Du Bois(1985)의 문법의 생태학(ecology of grammar),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등이 있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상호작용적인 언어에 대한 기본 가정과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실제 담화 상에서 작용하는 문법 내용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시도하였다(Haiman 1985; Hopper and Thompson 1980, 1985). 구체적으로 기능주의적 담화분석자들은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관찰되는 화자의 의식 내에서의 정보의 위상(Chafe 1987, 1994), 구 정보/ 신정보 관계(given/ new contract)(Clark and Haviland 1977), 선호는 항구조(preferred argument structure)(Du Bois 1985), 화제 지속성(topic continuity)(Givón 1983)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에서는 실제 담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에서 통계적 분석 방법이 쓰이는 이유는

특정 문법 표현과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담화 상에서 출현하는 문법 사용 패턴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법 표현과 관련 매개 변수(parameter)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담화기능주의적인 분석은 문법 형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문법 범주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언어인류학, 담화기능주의언어학과 대화분석은 각기 학문적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파생된 언어인류학, 기능주의언어학에서 발전한 담화기능주의언어학, 사회학에서 시작된 대화분석의 이론과 연구 방법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담화와 문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담화와 문법 연구는 위의 세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법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간의 경계면을 분석하고자 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Ⅲ. 중국어 담화와 문법 최신 연구 동향

최근 들어 담화와 문법 연구는 대화를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담화로 보는 대화분석의 시각을 기능주의언어학적 담화 연구에 수용하여 구체적인 대화 문맥에서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문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를 분석 방법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2) 담화와 문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주제와 내용을 분석 방법과 특징에 따라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소개하나 이들 연구들이 반드시 한 종류의 분석 방법과 특성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 1.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문어와 구어 자료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담화에서 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문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Li(2000)에서는 구어와 문어 자료에서 출현하는 수량사의 빈도와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구어에서 출현하는 수량사의 다양한 기능을 밝힌다. Li에 의하면 구어에서 출현하는 수량사는 형태-통사적으로 관형 수식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수량화된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대화참여자를 담화로 새로이 도입하는 문장이나 구에서 출현한다고 한다. 수량화된 명사구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사물이나 대화참여자를 전경화하고 이를 통하여 담화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또 다른 연구 예로는 Lim and Hong(2012)을 들 수 있다. Lim and Hong에서는 15 종류의 언어 장르로 구성된 구어와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각 장르에서 나타나는 강의어(intensifier)의 빈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들은 장르에 따라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강의어가 다름을 밝히며 장르와 강의어와의 관계는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장르에 따른 담화 맥락 또는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와 일치로부터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 문어와 구어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특정 담화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문법의 특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는 문법 구조를 통계적인 시각에서 정량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성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화에서 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문법의 체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Wang and Tsai(2007)에서는 다양한 담화 장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대조 표지인 ‘只是’, ‘但是’, ‘不過’, ‘可是’의 기능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들은 정량분석을 통하여 ‘可是’가 사적인 발화 상황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조 표지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但是’는 공적 독백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며 ‘不過’는 공적 독백에서는 적게 나타나는 반면 공적 대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只是’는 대조표지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며 사적 대화에

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정성분석을 통하여 ‘只是’는 사후 생각을 표현하거나 이전 발화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면 ‘不過’는 주제를 바꾸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但是’는 지적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는 반면 ‘可是’는 내부 주제 간에 대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Wang and Tsai(2007)가 공식적 언어 상태에 존재하는 동일한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형식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Wang, Tsai, and Yang(2010)에서는 ‘其實’과 ‘事實上’의 텍스트적 사용과 상호작용적인 사용을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들은 정량분석을 통하여 ‘其實’과 ‘事實上’이 공손함이 요구되는 TV/라디오 인터뷰 등 공적 대화에서 더욱 자주 출현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정성분석을 통하여 ‘其實’과 ‘事實上’이 담화표지로서 수정(correcting), 알림(informing), 화제 전환(shifting topic) 등 다양한 유형의 수사적인 책략을 나타내며 ‘其實’은 ‘事實上’과는 다르게 화자가 이전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의 체면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담화-화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방법을 결합하여 비교 분석하는 담화와 문법 연구는 특정 문법 현상의 빈도와 분포를 양적 분석을 한 후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그 특정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성 분석을 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경험주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문법 현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얻은 통계적 결과를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Big(2003)에서는 동사 ‘好’를 중심으로 출현하는 언어 유형(collocation pattern)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好’가 ‘了’와 ‘還’ 등과 언어 관계를 형성함을 밝힌다. 정량 분석 결과를 근거로 ‘好’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好了’가 주절에서 발화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지지를 전달하는 권고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還好’는 (1)중성적인 의미에서 약한 부정의 의미로, (2)중성적인 의미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3)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Big는 ‘好’를 중심으로 한 언어 형식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고 어법 구조가 담화 수행에서 담당하



는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好’가 담화 속에서 빈번한 언어 사용의 결과 상태 동사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어법 범주 전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언어 형식 또는 동일한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언어 형식들을 비교 분석하는 담화와 문법 연구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담화와 문법을 분석한 예로는 Wu(2015)에서 문어 담화 코퍼스를 중심으로 전체 수량사로 사용되는 ‘整’과 이후 ‘整’과 결합하게 되는 양사 ‘個’의 역사적 궤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Wu는 복합사로서 ‘整個’가 ‘전체의, 모든’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잃게 되면서 관형 수량사에서 정도 강의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도 강의로 사용되는 ‘整個’는 수사 ‘一’과 양사와의 결합을 통하여 고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 2. 순차 맥락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기존의 문법 연구는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문장 단위의 분석에 치중하였으나 언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글보다는 화자와 청자가 담화 상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담화 단위의 분석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실제 자연 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언어가 상호작용적인 말차례나 순차 구조에 맞추어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 발현되어 나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순차 맥락의 개념을 담화와 문법 연구에 적용한 예로는 Chen and He(2001)에서 실제 대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對不對’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말차례구성단위(turn-constructive unit(TCU))의 끝 지점에서 나타나는 ‘對不對’는 ‘對不對’가 붙은 문장의 언표 내적 힘을 강화시키는 표지로서 사용되며 독립적인 말차례구성단위로 사용되는 ‘對不對’는 상호작용적인 맥락의 전환을 나타내며 주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자의 주의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서 문법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對不對’의 의미와 기능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교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다.

담화와 문법 연구는 순차적 맥락에서 출현하는 문법 패턴을 분석하고 그 체계성을 파악하는데 대부분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화자들 간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하는 시간성(temporality)이 가장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im(2011)은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我覺得'의 담화-화용적 기능을 실제 대화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我覺得'은 화자 중심의 주관적인 인지적 표지(epistemic marker)로 여겨졌으나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출현하는 '我覺得'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자원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我覺得'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다음 말차례에서 청자의 반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발화가 가져오는 힘을 완화시키고 화자들 간의 협동적인 평가 맥락을 시작하는 기능을 함을 밝힌다.

이와 같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문법 구조와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기능 간에는 자연적이고도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예로 기존 언어학에서는 기본 문법 구조에서 벗어난 문장을 이동 또는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정상적인 어순"이 아님으로 뒤섞인 문장으로 여긴 반면 Luke(2012)에서는 실제 대화에서의 문장 구조는 실시간 순차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계획과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점진적 문장(incremental sentences) 구조를 분석한다. Luke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출현하는 점진적 문장이 상호작용적으로 강화(intensification), 강조(emphasis), 배경화(backgrounding), 조건(qualification), 설명(clarification), 명확화(disambiguation)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화자와 청자 간에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대화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문법을 분석한 예로 Wu(2005)는 일상 대화에서 선행 담화 맥락에서 후행 담화 맥락으로 이어지는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점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제 담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관찰되는 'ou'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Wu에 의하면 종결어미 'ou'가 첫 번째 짝부분(first pair part(FPP))에서 출현하는 경우 알림(informing), 인용(reporting) 또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ou'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응답하는 두 번째 짝부분

(second pair part(SPP))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자들 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중심 사건을 부각시키며 나타낸다고 한다.

Wu(2014)에서는 상호작용적으로 구축되는 말차례조직에서 관찰되는 어법 요소인 'ei'의 구체적인 출현 위치와 말차례 전환과의 상관관계를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Wu는 'ei'가 말차례 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면서 추이적정지점(transition-relevance place)에서 독립적인 억양 단위로 출현하는 'ei'는 화자가 발화권을 주장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ei'는 항상 독립적인 억양 단위로 출현하지 않으며 화자가 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발화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ei'를 이전 언어 요소에 바로 붙어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기능주의적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서 대화참여자들의 언어 사용이 실제 담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언어 사용이 사회 행위 수행과 관련되어 어떻게 문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보여 준다.

### 3. 담화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문법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담화 요소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관례화된 양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발생한 문법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유기적(organic)인 특징을 지니며 담화 상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동적인 체계이다.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는 발화 단위 내에서 특정 문법 구조가 문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과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문법이 독립적이며 고정적인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출현하는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생겨난다는 주장은 Tao(2003)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Tao에서는 말차례구성단위인 통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억양적 요소, 화용적 요소 등 다양한 문법구성체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인 문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연구한다. Tao는 '知道'가 통사적으로 목적어를 배척하는 반면 일인칭대명사, 이인칭대명사 등 주어와 부정부사 등 기타 언어 요소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억양적으로는 어음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용적인 측면

에서 ‘我不知道’는 화자의 의심을 나타내고, ‘不知道’는 화자가 자신이 표현한 사물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며, ‘你知道’는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조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知道’와 상호작용하며 자주 출현하는 담화 요소들을 어법, 어음,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고정화된 구조 유형으로 발전하는 ‘知道’의 동태적 성질을 밝힌다.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하는 또 다른 연구로 Pan and Lee(2004)에서는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過’와 ‘-了’의 기능을 통사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의미적이며 화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an and Lee는 기존의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過’가 중단성(discontinuity), 가역성/반복성(reversibility/repeatability), 편파성(partiality)의 특성을 가진 반면 ‘-了’는 결과 상태의 지속과 문제 상황의 총체적인 실현을 나타낸다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過’와 ‘-了’의 기능을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過’의 특징을 중단성과 가역성/반복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으로 중단성과 가역성/반복성을 새로운 특성인 상태의 변화(change out of state)로 바꾸고 총체성(totality)과 편파성 특징은 유지하고자 한다.

문법의 동태적인 사용 양상과 기능을 다양한 각도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Thompson and Tao(201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Thompson and Tao는 중국어 형용사가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고정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통사적, 의미적 분석을 통하여 서술 형용사가 한정 형용사에 비하여 자주 출현하며 서술 형용사와 한정 형용사는 서로 다른 유형의 형용사를 선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공기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어휘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담화-화용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서술 형용사는 화자 주위의 세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한정 형용사는 새로운 대화참여자들을 담화로 소개시킬 때 사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문법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적이며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Wang, Katz, and Chen(2003)에서는 ‘說’의 기능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의미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說’이 보문사(complementizer)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발화가 시작되는 위치에서 출현하여

인용 표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 후 ‘說’이 발화가 끝나는 위치에서 출현하여 강의어 또는 예상과는 반대(counterexpectation)되는 표지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적인 요인이 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 주어 ‘說’이 정보를 전달하는 명제적 의미 단계에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표현하는 담화 표지로서 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공시적 언어 상태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불규칙과 변이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인 문법화의 초기 단계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한다. 문법화와 관련하여 Biq(2004)에서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個’를 포함한 ‘V — 個 N’ 구조와 변이형을 중심으로 양사 ‘個’가 인접한 담화 내적 언어 요소들과 형성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V — 個 N’ 구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재분석(reanalysis)과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의 과정을 통하여 변이 구조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Biq는 ‘V — 個 N’의 변이 구조들 중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어 평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구조의 화용적 추리(inferencing)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들이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Wang and Tsai(2005)에서는 공시적 언어 상태에서 출현하는 ‘好’가 담화의 단계에 따라 여러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일상 대화 자료와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표상적인(ideational) 단계에서 ‘好’가 형용사 또는 정도 부사로서 기능을 하며 텍스트 단계에서 종료 또는 전환의 표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적인 단계에서 동의 또는 인정의 표지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 4. 태도 표시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들 상호 간에 언어 수행 행위가 발화의 명제적 의미를 전달하는 문법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적 태도(epistemic stance) 또는 정의적 태도(affective stance) 표시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Goodwin and Goodwin 2000; Heritage and Raymond 2005). 상호작용적인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도표시(stance-marking)는 화자

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며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겨나고, 조율되어 확립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화자들의 태도 표현과 상호작용적인 문법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Chang(2009)에서는 일상대화에서 출현하는 S-了(perfect-LE)와 C-了(comment-LE)가 화자의 인지적인 또는 평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了를 통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현은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며 대화참여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평가(assessment), 동의(agreement), 양보(concession) 등의 상호작용적인 사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처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발화 행위가 상호작용적인 동기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주장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Wang, Tsai, and Ling(2007)에서는 상호작용적인 맥락에서 출현하는 '沒有'의 의미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沒有'의 의미가 점차 화자 중심적에서 청자 중심적이 되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나타냄을 보여 준다. 텍스트 단계에서 '沒有'는 자기 질문(self-inquiry) 또는 자기 수정(self-correction)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어 화자 중심적인 의미를 갖으나 상호작용적인 단계에서 '沒有'는 주로 화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청자의 대답 또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수정/설명 또는 회피의 표지, 칭찬이나 감사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을 하며 '沒有'가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로서 발전됨을 보여 준다.

담화와 문법에서는 화자와 청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하여 청자가 어떠한 반응이나 태도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청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현과 문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예를 들어 Xu(2014)에서는 청자들이 이전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보여 주는 수용 태도와 이에 따른 반응발화 선택과의 연관성을 관찰한다. Xu는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반응발화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다양한 단계의 수용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언어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청자들의 수용 단계는 침묵하는→소극적인→중립적인→적극적인→친화적인 단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들은 화자가 발화를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표시

(continuer)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반응발화를 단계적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반응발화가 상호작용적인 언어요소로서 화자들 상호 간에 태도를 표현하고 협상하는 도구로 활용됨을 밝힌다.

또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의 정의적 태도나 인식적 태도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원천이 청자와의 상호 협상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공유되고 청자의 후속 행위를 어떻게 원활하면서도 협조적으로 이끌어 내는지 구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 Yang and Yap(2015)에서는 화자의 인식적 태도 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恐怕'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주관성 성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분석한다. 담화-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지적 주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발화를 시작하면서 '恐怕'를 사용한다고 한다. 두려움의 표현인 '恐怕'의 사용은 '恐怕' 뒤에 나오는 명제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며 화자가 생각하는 것을 세심한 배려와 고심 끝에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자의 인식적 태도 표시가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주관성을 협력적으로 성취하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 Tsai, and Schams, and Yang(2013)에서는 '只是'를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분석하여 '只是'의 다양한 기능이 화자의 정의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상호작용적인 대화에서 '只是'는 화자의 견해가 다른 견해와 상반될 때 화자의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며, 반대되는 태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화자가 '只是'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적인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전 화자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깊은 관여도를 나타내며 상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청자에게서 화자의 행위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화자가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 행위 수행 기능은 화자의 태도를 청자가 공유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합의된 토대 위에서 주관간의 합치를 성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작용적인 동기에 의하여 유발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시는 대화참여자들과의 연합을 형성하거나 관계를 분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uo(2002)에 따르면 이인칭단수대명사 '你'의 사용은 상호작용적인 목적에 따라

상대방과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거나 적대감과 대립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Kuo(2001)에서는 중국어 정치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화자들 간의 몰입 또는 분리를 이끌어 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인 화자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발화를 객관화할 수 있어 자신을 홍보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며 화자들 간의 상호교류적인 몰입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인용하는 것은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지식의 근원에게서 거리감을 갖도록 하여 화자들 간의 분리를 형성한다고 한다.

담화와 문법 분석에서는 상호작용적인 말차례 및 순차 조직 과정에서 화자의 태도 표시가 나타나는 위치와 관련하여 태도 표시의 사용과 기능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Wu(2004)에서는 말차례 끝지점에서 출현하는 'ou'는 화자가 이전에는 몰랐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정보를 알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다양한 단계의 인지적 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말차례 끝지점에서 출현하는 'a'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 내용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내고 청자와 비교하여 화자의 강한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차례가 끝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a'와 'ou'는 모두 구체적인 명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순차 맥락 특징에 따라 화자와 청자 간의 지식 상태와 인식적 태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된다.

화자의 태도 표시와 순차 맥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Wu(2006)에서는 중국어 일상 대화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반복 형태의 타자 개시에 의한 수정(other-initiated repair)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 형태의 타자 개시에 의한 수정 행위는 언어적으로 수정 행위를 할뿐만 아니라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반복 형태의 타자 개시에 의한 수정 행위를 통하여 화자는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자의 인지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 5. 비언어적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자연 구어 담화는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 행위로 다양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된다. 실제 자연 구어 담화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나 기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치중하였으며 비음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요소가 실제 대화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체계성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몸동작, 시선, 손동작 등 신체 동작을 수반하는 언어(embodiment)와 문법 체계와의 관계와 기능적 특성을 고찰한다. 예를 들어 Chui(2005)에서는 중국어 대화에서 출현하는 제스처 유형과 발화의 정보 위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녀는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의 사용과 발화 화제 간에는 관련이 있으며, 도상적 제스처는 초점 구문에서 신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Chui에 의하면 화자가 신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제스처를 통하여 상대방 화자에게 발화된 신정보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한다. 반면 구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에서는 제스처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대화에서 제스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화자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청자 측면에서도 연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Li(2014)에서는 청자가 화자의 말차례 도중에 진행 중인 발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청자는 몸을 화자 편으로 기울이며 청자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제공될 때까지 몸을 기울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발견한다. Li는 청자가 몸을 기울이는 것은 화자의 진술 발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전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대화참여자들 간에 형성된 대화참여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화자의 대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사회 행위를 조절하는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한다. Yang(2011)은 중국어 대화에서 화자들이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말차레를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상대방에게서 가져오고 자신의 말차레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화자는 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하여 말차레를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시선 맞춤과 접촉을 사용하여 말차레를 상대방에게서 가져 오며,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피하고, 생각하는 얼굴(thinking face)과, 손가락을 세는 행위(finger count)를 통하여 자신의 말차레를 유지함을 밝힌다.

또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제스처와 대화참여자들 간에 형성되는 대화참여틀(participation framework)과 관련된 문제이다(Goodwin 1980; Goodwin and Goodwin 1986). 예를 들어 Tao(2000)에서는 중국인 화자들이 상대방 화자와 연합하여 상호작용적인 대화참여틀을 형성하는 데는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자들 간에 시선 마주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화참여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상호작용적인 대화참여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화자들 간에 시선을 피하는 것은 상호작용적인 단결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자의 시선 방향 이동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형성된 대화참여틀에 포함된 구성원 범주(membership category)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는 간접적이고 문맥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 화자들 간의 면대면 대화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효율적인 사용은 화자들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Yang(2007)은 중국인 화자들이 비언어적 행위-시선, 고개 끄덕임, 미소, 손 접촉-를 사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 화자에게 소속감과 지지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Yang은 시선, 고개 끄덕임, 미소가 중국어 대화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되는 친화 수단으로 중국인 화자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화자들 간에 형성된 소속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화자들 간의 강한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의 손이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중국어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이성 간에는 손 접촉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 출현하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와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일상 대면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 IV. 나오면서

이 연구에서는 담화와 문법 연구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중국어와 관련된 최신 담화와 문법 연구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어 담화와 문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는 목적은 하나의 연구 이론과 방법론으로서 담화와 문법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와 문법 연구 이론과 방법론이 현대 중국어 담화를 연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21세기에 이루어진 담화와 문법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연 구어 담화를 중심으로 상호맥락적인 측면에서 담화와 문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문법 연구가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문장이나 인위적인 맥락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담화와 문법 연구는 다양한 언어적, 비·준언어적 담화 요소들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화와 문법 연구는 언어적 요소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있으며 운율, 억양, 웃음과 같은 음성적 요소와 몸동작, 표정, 시선, 손동작 등 비음성적 요소를 포괄하는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폭넓은 관심 부족은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전사 체계 부재로 이어졌으며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추상화하는 전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향후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의 미시적 세부 사항들을 가능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사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정밀 전사 체계를 확립하고 담화와 문법 전사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전사한 대화 자료를 근거로 수행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일상 대화에서 걸로 보기에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 등한시 하던 대화의 비·준언어적 현상들이 특정한 대화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제 간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등장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향후 다양한 방법론의 틀 안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을 방법론으로서 활용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특정 언어 표현이 출현하는 형태 통사적 분포와 빈도 등을 절 단위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 표현이 출현하는 선·후행의 대화 맥락 등을 고려하는 담화 차원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sup>3)</sup> 구어 코퍼스에 반영된 언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문법 연구는 실제 담화에서 문법이 여러 담화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와 문법 연구가 대다수를

- 3) 중국어 구어 코퍼스의 구축은 문어 코퍼스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낙후된 실정이다. 중국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코퍼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어 코퍼스

코퍼스 명칭	코퍼스 제작 기관	코퍼스 구성 언어	비고
北京大學語料庫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구어, 문어	현대 중국어, 고대 중국어 문어 자료 위주 문학작품, 신문 자료, 교과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자료
北京語言大學語料庫	北京語言文化大學	문어	신문, 문학작품, 과학 논문, 백과사전, 무협소설, 대만홍콩문학, 대륙 현당대문학, 고전소설
國家語委現代漢語語料庫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문어	
現代漢語平衡語料庫	中央研究院	문어	
國立政治大學漢語口語語料庫	國立政治大學	구어	중문, 객가어, 민남어 대화를 들을 수 있음. 말 차례 표시, 대화참여자 정보, 대화 상황, Du Bois 전사 체계를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대화를 전사
LDC(Linguistic Data Consortium)	미국 Pennsylvania 대학	전화 구어 대화	
Lancaster Corpus of Mandarin Chinese	영국 Lancaster University	문어 자료	

차지하는 현실에서 중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중국어 문법 연구자들이 중국어 담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문법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중국어 문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어 담화와 다양한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담화와 문법 현상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중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어의 보편적 일반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冉永平, 〈言語交際中“吧”的語用功能及其語境順應性特征〉: 《現代外語》 27권 4기, 2004. 11.
- 李成團, 〈話語標記語“嘛”的語用功能〉: 《現代外語》 31권 2기, 2008. 5.
- 陶紅印, 〈從語音、語法、話語特征看“知道”格式在談話中的演化〉: 《中國語文》 第4期, 2003.
- Atkinson, J. Maxwell John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Biq, Yung-O 〈Construction, reanalysis, and stance: V yi ge N' and variation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36(9), 2004.
- Biq, Yung-O 〈From collocation to idiomatic expression: The grammaticalization of hao phrases/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Computing》 14(2), 2003.
- Biq, Yung-O 〈Recent developments in discourse-and-grammar〉: 《BIBLID》 18, 2000.
- Biq, Yung-O, James H-Y. Tai, and Sandra A. Thompson 〈Recent developments in functional approaches to Chinese〉 In J. Huang A. Li (Eds.). 《New Horizons in Chinese Linguistics》 Dordrecht, Kluwer, 1996.

- Bybee, Joan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Benjamins, 1985.
- Chafe, Wallace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Chafe, Wallace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In Russell S. Tomlin (Eds.).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87.
- Chafe, Wallace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Chang, Li-Hsiang 〈Stance uses of the Mandarin LE constructions in conversational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41(11), 2009.
- Chen, Yiya and Agnes W. He 〈Dui bu dui as a pragmatic marker: Evidence from Chinese classroom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 Chui, Kawai 〈Topicality and gesture in Chinese conversational discourse〉: 《Language and Linguistics》 6(4), 2005.
- Clark, H. and S. Haviland 〈Comprehension and the given-new contract〉 In R. Freedle (Eds.).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77.
- Du Bois, John W. 〈Competing motivations〉 In John Haiman (Eds.).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 Du Bois, John W. 〈Beyond definiteness: The trace of identity in discourse〉, In Wallace Chafe (Eds.). 《The Pear Stories》 New Jersey, Ablex, 1980.
- Du Bois, John W. 〈The discourse basis of ergativity〉: 《Language》 63, 1987.
- Garfinkel, Harold 《Studies in ethnomethod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1967.
- Givón, Talmy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John Benjamins, 1984.
- Givón, Talmy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1983.
- Givón, Talmy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Goffman, Erving 《Interactional ritual: Essays in face to face behavior》 New

- York, Doubleday, 1967.
- Goffman, Erving 〈Footing〉 In E. Goffman (Eds.).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1.
- Goodwin, Charles 〈Restarts, pauses, and the achievement of a state of mutual gaze at turn-beginning〉: 《Sociological Inquiry》 50(3-4), 1980.
- Goodwin, Marjorie Harness and Charles Goodwin 〈Emotion within situated activity〉 In Budwig, N I. C. Uzgiris (Eds.). 《Communication: An arena of development》 Stanford, Ablex Publishing, 2000.
- Goodwin, Marjorie Harness and Goodwin Charles 〈Gesture and co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f searching for a word〉: 《Semiotica》 62(1-2), 1986.
- Gumperz, John J. and Hymes, Dell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Special Issue of the American Anthropologists》 66(6), part II, 1964.
- Haiman, John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 Haiman, John and Sandra A. Thompson 《Clause-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88.
- Heritage, John and Geoffrey Raymond 〈The terms of agreement: Indexing epistemic authority and subordination in talk-in-intera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1), 2005.
- Hopper, Paul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Talmy Givon (Eds.). 《Discourse and Syntax(Syntax and Semantics 12)》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Hopper, Paul 〈Emergent grammar and the a priori grammar postulate〉 In D. Tannen (Eds.). 《Linguistic in context: Connecting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Norwood, Ablex Publishing, 1988.
- Hopper, Paul J.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3, 1987.
-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The iconicity of the universal categories “noun” and “verb”〉 In John Haiman (Eds.).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1980.

- Kuo, Sai-Hua <From solidarity to antagonism: the uses of the second-person singular pronoun in Chinese political discourse>; 《Text》 22(1), 2002.
- Kuo, Sai-hua <Reported speech in Chinese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Studies》 3(2), 2001.
- Li, Charles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Li, Wendan <The pragmatic function of numeral-classifier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32, 2000.
- Li, Xiaoting <Leaning and recipient intervening questions in Mandar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67, 2014.
- Lim, Ni-Eng <From subjectivity to intersubjectivity: epistemic marker wo juede in Chinese> In Yun Xiao, Liang Tao, and Hooi Ling Soh (Eds.). 《Current Issues in Chinese Linguistic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1.
- Lim, Ni-Eng and Huaqing Hong <Intensifiers as stance markers: A corpus study on genre variations in Mandarin Chinese>; 《Chinese Language Discourse》 3(2), 2012.
- Luke, Kang-Kwong <Dislocation or afterthought?-A conversation analytic account of incremental sentences in Chinese>; 《Discourse Processes》 49(3-4), 2012.
- Pan, H. and P. Lee <The role of pragmatics in interpreting the chinese perfective markers -guo and -le>; 《Journal of Pragmatics》 36(3), 2004.
- Sacks, Harvey 《Lectures on conversation, Volume II》. (Eds.). by Gail Jefferson, Oxford, Blackwell, 1992.
- Sacks, Harvey <On the analyzability of stories by children> In J. J. Cumperz and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 1972.
- Sacks, Harvey, Emanuel Schegloff Gail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
- Tao, Hongyin <Body movement and participant alignment in Mandarin conversational interactions>; 《CLS 35, Parasession on Language, Identity, and the Other》, 2000.
- Thompson, Sandra A. and Hongyin Tao <Conversation, grammar, and fixedness: Adjectives in Mandarin revisited>; 《Chinese Language



- Discourse》1(1), 2010.
- Tomlin, Russell S.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87.
-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Wang, Yu-Fang and Pi-Hua Tsai 〈Hao in spoken Chinese discourse: relevance and coherence〉: 《Language Sciences》 27(2), 2005.
- Wang, Yu-Fang and Pi-Hua Tsai 〈Textual and contextual contrast connection: A study of Chinese contrastive markers across different text types〉: 《Journal of pragmatics》 39(10), 2007.
- Wang, Yu-Fang, Aya Katz and Chih-Hua Chen 〈Thinking as saying: shuo('say') in Taiwan Mandarin conversation and BBS talk〉: 《Language Sciences》 25(5), 2003.
- Wang, Yu-Fang, Mei-Chi Tsai, Wayne Schams, and Chi-Ming Yang 〈Restrictiveness, exclusivity, adversativity, and mirativity: Mandarin Chinese zhishi as an affective diminutive marker in spoken discourse〉: 《Chinese Language Discourse》 4(2), 2013.
- Wang, Yu-Fang, Pi-Hua Tsai and Meng-Ying Ling 〈From informational to emotive use: meiyou ('no') as a discourse marker in Taiwan Mandarin conversation〉: 《Discourse Studies》 9, 2007.
- Wang, Yu-Fang, Pi-Hua Tsai, and Ya-Tong Yang 〈Objectivity,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Evidence from qishi ('actually') and shishishang ('in fact') in spoke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42(3), 2010.
- Wu, Haiping 〈Encoding subjectivity with totality: A corpus-based study of [zhengge yi(CL) + X] in Mandarin〉: 《Journal of Pragmatics》 83, 2015.
- Wu, Ruey-Juan Regina 〈There is more here than meets the eye!": the use of final ou in two sequential position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7(7), 2005.
- Wu, Ruey-Juan Regina 《Stance in Talk: A conversation analysis of Mandarin final particles》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4.
- Wu, Ruey-Juan Regina 〈Initiating repair and beyond: the use of two

repeat-formatted repair initiations in Mandarin conversation):  
《Discourse Processes》 41(1), 2006.

Wu, Ruey-Jiuan Regina (Managing turn entry: The design of EI-prefaced  
turns in Mandar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66, 2014.

Xu, Jun (Displaying status of reciprocity through reactive tokens in  
Mandarin task-oriented 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74,  
2014.

Yang, Ping (Nonverbal affiliative phenomena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5, 2007.

Yang, Ping (Nonverbal aspects of turn taking in Mandarin Chinese  
interaction): 《Chinese Language Discourse》 2(1), 2011.

Yang, Ying and Foong Ha Yap (‘I am sure but I hedge’: Fear expression  
kǒngpà as an interactive rhetorical strategy in Mandarin broadcast  
talk): 《Journal of Pragmatics》 83, 2015.

### 【英文提要】

This study shows how discourse-and-grammar has developed as a branch of functional linguistics within the tradition of linguistic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discourse-based functional approaches to grammar in the United States. Using discourse-and-grammar analysis, this paper surveys recent studies of Chinese that incorporate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describing and understanding various grammatical phenomena.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romi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at ma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is shaped by its function as a tool of human communication.

**【主題語】**

담화와 문법, 중국어, 상호작용, 구어, 상호작용언어학

discourse and grammar, Mandarin Chinese, interaction, spoken language,  
interactional linguistics

言談與语法, 汉语, 互动, 口语, 互动语言学

투고일: 2016. 4. 14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